



**ADMA**

on line

2024년 10월



토리노 발도코 월간 메시지

# 요약

## 사설

- 3

불가능은 하느님의 영역이다

---

## 양성 여정

- 4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 2. “너희가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기도와 하느님의 뜻

---

## 친숙한 문자

- 5

아직도 사랑으로

---

##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6

10월 29일 - 미켈레 루아 복자, 살레시오회 사제

---

## 도움이신 마리아회 지침

- 9

2. 아드마에게 ‘나에게 영혼을 주고’의 의미: 그리스도교 신앙의 수호

---

## 노선을 따라가기

- 10

매월 24일마다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억하기 위한 노선

---

## 가족연대기

- 10

- 미얀마 - 아드마가 시작되다.
  - 아드마 프리마리아의 피정.
  - 파티마에서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
  - 새로운 칼럼: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
  - 죽은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 

## 월간 기도지향

- 12

사명 공유를 위하여

---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www.admadonbosco.org](http://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



## 불가능은 하느님의 영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목의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파티마에서 열린 제9회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를 회상하고 기억하며, 어린 요한 보스코가 9살 때 꾸었던 꿈을 기념하면서, 그의 모든 사명의 영감과 시작인,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를 추억해 봅시다.



여러 대륙과 다양한 장소, 많은 국가로부터 온 사람들이 파티마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사와 경험, 각자가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성모님의 부르심과 뜻에 따라 그곳에 모였고,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꿈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꿈의 일부로, 성모님께 바칠 꿈을 가지고 파티마에 왔으며, 어머니이시며 스승이신 성모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그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자녀, 가족, 친구, 고통받는 이들, 병자들, 계획, 공동체, ADMA, 살레시오 가족 등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모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강렬한 기도의 날들이었고, 기쁨에 넘쳤으며, 깊이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성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대회를 가능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강의와 체험들이, 우리의 길과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아 보졸로 신부의 꿈에 대한 강의입니다. **“영원한 하느님과 만남의 매력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부르심의 순간에는 자신을 뛰어넘는 무언가의 앞에서 두려움에 더욱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꿈에서 경험했던 혼란도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임무의 역설적인 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정의합니다(«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 세상에 대해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수준, 경험의 한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계 너머에는 불가능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를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과, 그 꿈은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 아오스딩은 “주님, 당신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어, 당신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들에게는,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선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 희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파노 마르톨리오 신부의 마지막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또 제도적인 행위 안에서, 돈 보스코의 마음과**

**교회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돈 보스코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의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면서 체험한, 영적인 측면의 하나였던 마리아 신심을, 어머니의 손에 맡겨 드리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지금 여기 마리아의 현존이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하고, 들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리아께 청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대중신심은 수 세기에 걸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결정체로서, 다섯 번째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구원과 성덕이라는 위대한 사업을 목표로, 마리아는 돈 보스코의 삶에서 현존하셨고 사랑받으셨으며 활동하셨습니다. 돈 보스코는 그녀가 가까이 계심을 느끼면서 성모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의 성소의 길을 인도받았으며, 그 길을 따라 갔습니다. (돈 보스코는 그녀를 꿈꾸고 그녀를 “봄니다”). 마리아는 돈 보스코를 동행하고, 지원하고, 안내하고, 격려하는 활동적인 현존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리니, 그의 지도 아래 너는 지혜롭게 될 것이며, 그가 없이는 모든 지혜가 쓸모없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또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마리아께 맡겨드릴 것을 이를 통해 힘있게 재확인하였습니다. ADMA는 대중신심 형태로도 단순하면서 깊이 있는 신심을 보존하고자 하며, 이를 우리 가정과 가족 안에서, 마리아의 현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스테파노 신부는 마리아의 현존을 다음의 기도문을 기억하도록 초대합니다. **“총체적인 긴장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 의식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 입술과 마음, 정신이 / 덕의 길을 걷게 하소서 / 위대하신 동정 마리아여. / 성 요한 보스코 사제>** (사진 아래 성인이 쓴 기도문)”

모두에게 행복한 여정을 기원합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조 신부,  
SDB 발도코 아드마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아드마 회장.**



## 양성 여정

###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 2. “너희가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기도와 하느님의 뜻

그리스도교인의 이상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언어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인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식별이 필요합니다. 식별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식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은 마르코 복음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도 하고, 인간의 수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씨앗’의 비유라고도 하며, 씨 뿌리는 사람의 일과 그가 일하는 땅의 상태를 모두 포함하여, “파종”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경청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식별의 원리가 되며, 이는 우리에게 지적인 방법뿐 아니라, 훨씬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말씀에 접근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일은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맛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많이 실행하는 것이, 선과 악을 아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악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기도와 말씀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말씀의 ‘위기’에 관한 두 가지 권고, 즉 하느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지만, 또한 심판이라는 사실과, 사람이 그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들어라... 들리는 것을 경청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 중심에는 가장 극적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도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비유에서 말하는 다양한 유형의 땅은 우리의 도덕성(순수한 자와 불순한 자, 의인과 죄인, 지도자와 소외된 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며,** 말씀이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꾸게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 예수님의 말씀대로 - 좋은 상황은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쁜 상황은 더 나쁜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어쨌든 이 비유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고 말씀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강조하신 결론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불완전한 제자인 우리의 사명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도 많은 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결국 우리의 수고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현실주의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부의 평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를 절약하면서 뿌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씨앗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와 가시덤불, 돌밭은 이미 농부들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어떤 농부도 이러한 일과 씨앗의 손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상된 일이었고, 결국 그는 여전히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들 딸들이 신앙을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기회와 유혹, 넘어짐과 부활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말씀과 기도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성장 과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거나 언제나 성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토양에 대한 은유도 궁극적으로 볼 때는 역동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토양이 되었다가 다른 토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척박하고, 어떤 때는 건조하며, 어떤 때는 거절하고, 어떤 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네 가지 토양의 의미를 명확히 알기 위해 예수님의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1. 말씀을 듣지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있는 땅은, 씨앗이 맺기도 전에 새들이 씨앗을 채 가는 땅입니다. 2.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환난과 핍박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위가 많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으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3.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매혹되거나 이끌려, 말씀이 세상에 압도당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씨앗이 발아되지 않는 땅입니다. 4.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땅으로 된 밭이라 놀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20절).

영혼이 듣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질 때, 전면에서 **식별해야 할** 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교회는 매우 구체적인 지혜를 많이 발전시켜왔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1.** 선한 영은 예수님이 주님임을 인식하고 복음에 따라 선택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2.** 선한 영은 분열하지 않고 사랑을 거스르지 않도록 이끌어 줍니다. **3.** 선한 영은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겸손과 애덕이 자라게 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영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4.** 선한 영은 기쁨과 평화, 감동과 위로의 원천이며, 장애물을 제거하고 용기를 주는 반면, 악한 영은 슬픔과 동요를 일으키며, 거짓 추론과 절망을 심어주고 장애물을 과장되게 하여 낙담하게 만듭니다. **5.** 위로가 있을 때는 선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충고하며, 절망이 있을 때는 악한 영이 더 많이 활동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동요하지 말고 확고한 목표와 의도를 확고히 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인내로와야 합니다. 위로 속에서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로를 받을 때는 겸손해야 하며, 절망 속에서도 강인함을 느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성 이냐시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네 가지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나를 움직이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은 위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사랑이 창조주이신 주님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2.**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우리 주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그의 영혼의 더 큰 유익을 위해,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3.** 나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처럼 현재의 선택을 내가 그때 취할 행동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나를 규제하면서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4.** 심판의 날에 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서, 나는 현재의 일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규칙을 지금 선택합니다. 그때 나는 큰 기쁨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베르토 바렐리, SDB

## 친숙한 문자

### 아직도 사랑으로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과 형제애, 혼인과 자식에 대한 사랑, 에로스와 아가페 등 사랑의 모든 차원을 통합하고 구별하도록 부름받은 가족이라는, 아름답고도 까다로운 사랑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가지 어려운 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 법과 사랑의 화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두드러진 반전 중의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마르 12,30)는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눈을 잘 뜨고 본다면, 우리 시대가 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 명령의 대상이며 명령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사랑에는 그 자체의 법이 있으니, 스스로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법의 핵심이 곧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정으로 염려하시는 하느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 법과 사랑의 분리, 겉으로는 사랑의 자발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자의적이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사랑을 죽이는 악마적인 면이 있습니다. 법과 사랑을 조화시키는 복음주의적 역설을



거부함으로써, 유대를 목표로 하는 사랑은, 모든 유대를 용납하지 않는 모순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문명 전체가 불편함의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의 과잉, 욕망의 과잉은 어제 신경증적이 되어 억압되고 범법적인 사람들을 낳았고, 오늘날 법의 결함은, 모든 침략에 욕망을 노출시켜, 자신의 충동, 관계, 사건에 대한 통제와 통제의 상실 사이에서, 정신병적 경향을 지닌 사람들을 생산하며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치

하느님 계명의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사이의 통일성과 비대칭성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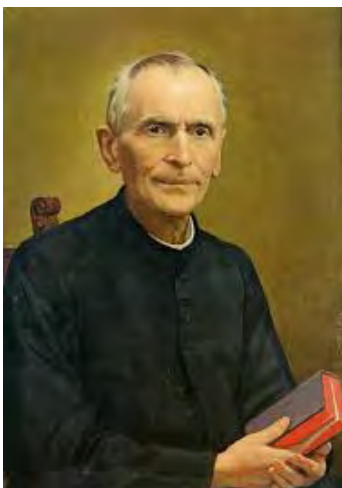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는 다른 하나의 기초이고, 다른 하나는 첫 번째 계명의 열매이자 검증이며 심화라는 사실을 합창하듯 확인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피조물도 사랑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딸, 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맞서라는,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가혹하게 들립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6)고 예수님께서서는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섬기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알고 계십니다 - 그분은 매우 신중한 분이십니다! - 인간의 애정은 너무 번거롭기만 합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루카 12,53)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을 앞세우면 하나를 잃고 나머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와 원망이 있고, 눈물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악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행복을 배우자에게 기대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이며, 이는 사람을 모욕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 많이 선택하고, 모든 일에 있어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자신과 서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백 배로 받을 것이다!”(마태 19,29).

##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10월 29일 - 미켈레 루아 복자, 살레시오회 사제



어느 날 돈 보스코는 코스타마냐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준비하되 후계자를 선택하라, 나는 너의 일이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은총, 덕, 은사와 카리스마를 구하면 나는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 사랑의 순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계명의 세 가지 사랑,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정확한 위계질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우위성은 교만과 이기심의 속박에서 자기 사랑을 해방시켜, 용기와 관대함으로 이웃 사랑을 열어준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처럼 하느님의 사랑보다, ‘너 자신을 돌보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자기 사랑에 중점을 두는 사회에서는, 이웃 사랑이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자기 성취와 관계적인 행복, 성공과 만족의 관점에서 사랑을 말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무자비할 만큼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약하며 자기애적인 정체성,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따라서 관계적인 취약함과 흔들리는 소속감으로 단기 계약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최소와 최대의 의미, 즉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점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칭을 잊지 않으면서, 하느님은 모든 것 위에 사랑받으셔야 마땅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소유욕과 강박관념이 되어 지배하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공격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합니까!

**로베르토 카렐리 SDB**

(출처: 로베르토 카렐리 - 가족 알파벳)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코스타마냐, 나는 이미 루아 신부에게서 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켈레 루아는 1837년 6월 9일 토리노의 서민층이 사는 보르고 도라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무기고에서 일했고, 가족은 공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어머니는 두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미켈레의 눈은 종종 포탄을 녹이는 뜨거운 오븐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소년기 처음 두 학년을 다닌 곳은 일종의 막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년 전 탄크레디 디 바롤로 후작이 서민층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보르고에서



시작한 그리스도 학교의 형제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3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벤치에서 돈 보스코와 만났는데, 돈 보스코는 어린 소년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돈 보스코는 많은 소년들에게 그러했듯이 손을 내밀며, ‘너와 나는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눌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미켈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날부터 돈 보스코는 그의 고해신부가 되었습니다. 3학년이 마지막 의무 교육이었으므로, ‘젊은이의 성인’이 내년에는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아버지가 안 계시므로 공장에서 어머니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가 없었던 사제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가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미켈레는 이미 500명이 넘는 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발도코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제 성소가 피어났으며, 그는 1852년 10월 3일 카스텔누오보 베키에서 성인으로부터 신학생복을 받았습니다. 이듬해는 성체의 기적 4백 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돈 보스코는 이 행사를 위해 소책자를 썼으며, 어느 날 토리노 거리를 그와 함께 걸으며, 50년 후에 이 책을 다시 인쇄하게 될 거라고 그에게 농담 삼아 예언을 했습니다.

1854년 1월 26일, 돈 보스코는 자신의 방에 네 명의 젊은 동료들을 모아, 살레시오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임에는 ‘회의록’ 작성을 맡았던 요한 칼리에로와 미켈레 루아도 참석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던 그들은, 8월, 크림 전쟁 참전 용사들로부터 전염된 콜레라가, 도시에 발생했을 때, 기꺼이 나서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도왔으며, 칼리에로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사비오와 함께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회의 회원이었던 그는, 모범적인 돈 보스코의 제자이면서 동료들에게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1855년 3월 25일, 돈 보스코의 방에서 미켈레는 단순 ‘수도서원’을 했습니다. 그가 최초의 살레시오회 회원이 된 것입니다. 발도코에는 제화, 양복, 제본 공장이 있었으며, 많은 소년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퇴근 후 저녁에, 어떤 이들은 일요일에 그곳에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켈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중요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의 완전한 신뢰를 받았고, 종종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도 성인의 책 초고를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이민자들로 가득한 포르타 누오바 인근의 성 루이지 오라토리오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이들은 굴뚝 청소부 일자리를 찾아 산에서 도시로 온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교육도 가르쳤으므로, 그들의 많은 비참한 이야기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 레오나르도 무리알도와 복자 프란치스코 파 디 브루노도 오라토리오를 자주 찾았습니다. 1856년 11월, 돈 보스코의 어머니 마르케리타 오끼에나가 세상을 떠나자 미켈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발도코의 청소년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조반나 마리아 여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반성직자 법으로 인해 신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신학교에 다녔으며, 실제로 많은 그의 친구들이 그가 정리한 노트를 보고 공부했습니다.

1858년 2월 돈 보스코는 수도회 규칙을 썼으며, ‘듬직한 비서’로서 읽어내기 어려운 돈 보스코의 필체를 베끼느라 여러 날 밤을 샅았습니다. 그는 돈 보스코와 함께 교황 비오 9세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규칙을 가지고 로마로 갔으며, 비오 9세는 직접 손으로 이를 수정해주었습니다. 미켈레는 낮에는 창립자의 그림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인물들과의 만남에 동행하느라 바빴고, 밤에는 필사 작업으로 바빴습니다. 이듬해 교황은 살레시오 수도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수도회 창립일인 1859년 12월 18일 전날 저녁, 부제 서품을 받은 루아 신부는, 만장일치로 영적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860년 7월 29일, 미켈레 루아는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미사 제대에는 성 루이지 오라토리오의 굴뚝 청소부 청소년들이 기증한 흰 꽃이 놓였습니다. 3년 후 그는 토리노가 아닌 첫번째 살레시오회의 공동체가 세워질 미라벨로 몬페라토에서 작은 신학교를 시작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렀으며, 발도코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이 건설되고 있던 시기에, 다시 발도코로 돌아왔습니다. 루아 신부는 돈 보스코에게 보내오는 편지에 답장을 보내기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으며, 1868년 7월에는 복막염으로 죽을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회복되었고, 돈 보스코의 기도로 그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라토리오 소년들에게서 7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수도회의 성소자들이 나왔는데, 성지의 공사가 완료되던 그 해, 1872년에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들이 첫 수도서원을 발했으며, 1875년에는 칼리에로 신부가 이끄는 첫 선교사들이 아르헨티나로 떠났습니다. 이후 협력자회와 살레시오 회보가 탄생했습니다. 발도코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고, 로마에서 교황 레오 13세는 살레시오회에 예수성심대성당의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돈 보스코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자주 여행했고, 루아 신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1884년, 창립자의 건강이 악화되자 교황은 직접 후임자를 물색할 것을 돈 보스코에게 권고했습니다. 루아 신부는 11월 7일 교황으로부터 계승권을 가진 부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888년 1월 30~31일 밤, 많은 사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성인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마지막 강복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돈 보스코의 시신 앞에 두 시간도 넘게 무릎을 꿇고 머물렀습니다.

살레시오회의 총장이자 돈 보스코의 첫 번째 후계자가 된 루아 신부는, 모든 면에서 카리스마의 충실한 해석자, 실현자, 통합자, 계승자로서, 임무를 시작할 때부터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고한 하나의 생각은,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매우 기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분이 실천하고 가르치신 방법을 충실히 따르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본받도록 노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이것이 내가 내 직분을 실행할 프로그램이며, 모든 살레시오 회원들이 자신의 목표와 공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돈 루아의 통치는 카리스마적이며, 모범적인 통치였습니다. 돈 루아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모범적이며 진정한 모델로서의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살레시오회, 교회, 시민 사회 앞에서 돈 보스코와 그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지혜로서 통치하는 동안 그의 통치는, 그의 거룩함과 도덕적 자질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화의 결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레시오회의 확장은 자금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였으며,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을 지원하고 더 나은 발전을 꾀하면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민족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루아 신부는 22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살레시오회를 확장시켰습니다. 살레시오회는 돈 보스코가 사망할 당시 64개 공동체에서, 그가 사망하던 1910년에는 341개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축복과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이 뒷받침된, 활동의 또 다른 열매는 성소의 성장입니다. 성소 육성에 대한 루아 신부의 끊임없는 의지는 살레시오 공동체를 그리스도교적 양성의 학교로 만들었으며, 자주 살레시오들에게 그들의 소명과 카리스마의 핵심, 즉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루아 신부에게 살레시오 활동의 뛰어난 성소 증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는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과 살레시오 사목 및 교육 체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돈 보스코가 사망할 당시 살레시오인은 768명이었으며, 돈 루아가 사망할 당시 그 수는, 살레시오회의 서약회원이 4,001명, 수련자가 3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소 증진은 안정된 양성과정을 위해 수련소와 신학과 철학 과정에 있는 이들을 위한 양성센터가 세워진 결과입니다.

그는 회헌과 회칙의 중재를 통해, 살레시오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체험, 돈 보스코에 대한 충실, 카리스마, 돈 보스코의 저작물이나 번역물, 돈 보스코를 만났던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그의 통치와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루아 신부는 살레시오회가 돈 보스코와 긴밀한 친교를 이루며 사는 것이, 외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개인주의, 고립, 자유주의의 경향을 극복하고, 수도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키며, 총회와 총장, 관구장, 원장들 아래 일치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며, 형제애와 사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루아 신부는 지치지 않는 선교사였으며, 예방 교육의 충실한 해석자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도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도회의 집들을 방문하여 하나의 대가족으로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여행하면서 “모든 곳에서 가난”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대규모 산업화로 인해 농부들은, 엄청난 노동 끝에 공장에서 벌어들이는 빈약한 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땅을 버렸습니다. 살레시오회는 많은 아이들을 거리에서 데려왔으며, 시간이 없는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센터를 세우고, 단순한 그들을 위해 오라토리오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루아 신부는 교육 분야의 위대한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전문 과정을 도입한 학교 외에도 숙소와 친교 동아리를 조직했습니다. 수도회 책임자로서 그는, 때때로 협력자들에게 가혹한 행정 문제도 꼼꼼하게 다루었습니다. 종종 돈 보스코가 아직 소년이었던 그에게 했던 말이, 그의 마음 속에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루아 신부는 많은 만족도 누렸지만(1907년에 돈 보스코가 가경자로 선포되었고, 1908년에 산타 마리아 리베라트리체 로마 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1896년에 에콰도르의 반성직자 정부는 살레시오회를 그 나라에서 추방했습니다. 1902년 프랑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리구리아의 바라제에서는 수도회에 대한 일부 심한 비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프리메이슨 계획은 무너졌고 중상모략자들은 해외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루아 신부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를 붙잡아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는 1910년 4월 5일과 6일 사이의 밤에, 돈 보스코가 그에게 소년이었을 때 가르쳐 준 화살기도를 바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여, 제 영혼을 구해 주소서.” “살레시오 가족의 두 번째 아버지”는 그의 스승 옆에 묻혔습니다. 바오로 6세는 1972년 10월 29일, 그를 시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은 [...] 돈 보스코에게서 시작되었고, 돈 루아는 살레시오 가족을 자라게 했습니다. [...] 그는 성인의 정신을 회헌으로, 성인의 모범을 성덕의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 돈 루아가 그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토리노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 지하에 모셔졌습니다.

## 기도

우리 아버지 하느님,

성 요한 보스코의 영적 상속자인 복자 미켈레 루아 사제에게, 당신은 젊은이들을 육성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미지를, 젊은이들에게 교육하게 하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저희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하소서.

비오니,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전구로, 저희가 청하는 ....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피에르루이지 카메로니, SDB**

(출처: Pierluigi Cameroni - 하늘의 별처럼)





## 도움이신 마리아회 지침

### 2. 아드마에게 ‘나에게 영혼을 주고’의 의미: 그리스도교 신앙의 수호

성령의 영감을 받은 “Da mihi animas”에 정신에 따라 온 보스코는, 젊은이들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평신도로 구성된 ADMA를 설립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교회와 살레시오 가족과의 친교 안에서, 평신도로서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의 재발견을 통해, ADMA는 다음과 같이 제안함으로써, 평신도의 양성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모든 연령대가 접근할 수 있는 확고한 그리스도교적 영적 삶의 길.** 이는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모성적 지도 아래, 기도, 미사 참여, 교리교육을 통해, 성찬례 안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 **예방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인간 양성.**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국가의 의무에 대한 책임 있는 수행에서 발생하는 그리스도교적 성덕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살레시오 가족, 특히 총장의 스트레나에서 제공되는 지침을 시작으로 협회의 양성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사회와 교회의 생명 세포인 가정의 신앙을 수호하고 키우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큰 혼란의 시기에 평신도로서 우리는, 복음화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의 아름다움을 즐겁게 살아가며, 자녀를 성숙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로 배우자로서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모든 젊은 가족들과 십대 자녀를 둔 가족들을 열린 시각으로 경청하며, 시대의 표징을 파악하고 환영하며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표징을 읽을 수 있도록 열린 관점으로 경청하고, 가족을 돌보며, 신앙인으로서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의 살레시오 정신으로, 일상생활 안에서 통합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대 간 관점에서 우리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가치를 발하고, 그들을 지역 사회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그들에게 삶의 단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살레시안들과의 협력으로, 오라토리오와 관련 센터에서 젊은이들의 인간적 양성과 그리스도인적 양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숙한 어른들의 동반은, 사제, 수도자, 혼인 등 교회 안에서 여러 성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살레시오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의 성인들에 대해 말하며, 모든 살레시오 가족을 세대 간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어린이들(어린이와 어린 미성년자)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를 위한 ADMA 활동은 그 자체로 청소년 그룹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센터, 오라토리오, 살레시오 청소년 운동의 관점에서, 젊은이를 위해 제안하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ADMA로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성체성사와 마리아 차원의 그룹을 제안하고, 기도와 주님의 만남을 위한 공간을 장려하며, 내면을 돌보는 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적 제안은 젊은이들이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장 적합한 공동체 형태 - 모임/캠ป์ - 로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보조적이며 보완적인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입회지원자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소책자를 제작했고, 평신도와 사제들로 팀을 구성하여, 1년 간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정은 협회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해하게 하는 것 외에도, 성 요한처럼 마리아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은사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회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총을 나누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적 의무는 협회의 사도직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감에 따라 세상의 여러 그룹들처럼 기쁨으로, 빈곤 퇴치와 같은 많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노선을 따라가기

### 매월 24일마다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억하기 위한 노선



매월 24일에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 마리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자, 다음과 같은 시간의 기도 노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성체 현시.
- 프란치스코 교황의 월별 기도지향으로 묵주기도 바치기.

- 각 신비의 시작 부분에서 신비를 말하고, 복음을 주의 깊게 읽기.
- 묵주기도가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자유 기도 바치기 권유
- 하루를 마치면서 살레시오적 밤인사(5분 이내).
- 기도를 시작할 때 고해성사를 권유하는 것이 중요.
- 음악을 활용하여 기도 동반.

## 가족연대기

### 미얀마 - 아드마가 시작되다

미얀마에서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가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에 창립되었으며, 처음으로 66명의 회원이 서약했습니다. 이 장엄한 경축행사는 아니사칸에 있는 “돈 보스코-나자렛”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당에서 거행되었으며, 미얀마 살레시오(MYM) 부관구장인 보스코 니니 신부가 주례, 살레시오 가족위원장 요한 감 생 신부가 함께 했습니다. 미사 중에 각 회원들에게는 메달, 회칙, 배지, 회원증, 협회 유니폼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도 살레시오 가족의 네 번째 그룹인 ADMA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아드마 프리마리아의 피정

토리노의 아드마 프리마리아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주제의 여름 피정은, 8월 17일 토요일에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피정은 7월 발도코에서 조직되어,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발 다오스타에 있는 프라카르본의 살레시오 집에서 5차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대 간 훈련을 제안한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의 미션 아래, 어린 자녀와 청소년이 있는 가족, 성인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과 조건에 속하는,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삶의 여러 국면을 겪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공통된 믿음과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뢰로 하나 되어, 서로를 풍요롭게 하며,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리교육은 ADMA 프리마리아의 영적 활성화자인 Gabriel de Jesus Cruz Trejo 신부, 피에몬테 발 다오스타 Michele Molinar SDB 신부, 부관구장, Roberto Carelli SDB 신부, 신학 교수, Don Pierluigi Cameroni SDB 신부, 시복 시성 조사관. 또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이며 살레시오 가족 대표인 루크레시아 우리베 두케 수녀, 아드마 프리마리아 평의원인 마릴레나 발세트 수녀가 참가자들을 동반하며 친교와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 파티마에서의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

8월 말 파티마에서 개최된 제9회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에는 사제와 평신도를 포함하여 44개국에서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마리아 신심의 보편성과 살레시오 가족의 삶에서 마리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성찰의 순간이었습니다. 로마 살레시오 교황청립 대학 총장 안드레아 보졸로 신부는 살레시오 가족의 소명과 사명의 상징으로, 돈 보스코의 “아홉 살 꿈”을 제시했습니다.

강사에게 돈 보스코의 꿈은, 그의 삶과 사명을 심오하게 양성한 거룩한 계시였습니다. 꿈에서 돈 보스코는, 자신에게 맡겨질 교육 사명의 상징인 넓은 안뜰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와 도움이신 마리아의 현존은, 젊은이들을 향한 “사려 깊은” 접근과 “지도”의 필요성을 드러낸다고 보졸로 신부는 강조했습니다.

“돈 보스코의 사명은 믿음과 순명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라는 초대이며, 진리의 빛이 있는 곳에는 종종 어둠과 불확실성이 드러나며, 이는 거룩한 소명의 역설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졸로 신부는, 진정한 교육과 변화는 억압과 처벌이 아닌 온유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살레시오 교육과 그리스도교 실천의 핵심 원리인 온유와 사랑을, 젊은이 양성에 반영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살레시오회 후안 호세 바르톨로메 신부는 신학과 성서학 박사입니다.

그는, “식별의 스승이신 나자렛의 마리아”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는데, 다양한 성서 구절을 통해, 예수의 탄생부터 청소년기의 마리아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 뜻에 대한 믿음과 순명의 모델인 마리아의 성소를 탐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느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은총을 느낍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 새로운 칼럼: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



독자 중 한 분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관심사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칼럼으로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답하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죽은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죽은 전 세계의 모든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를, 매월 24일 오전 9시, 토리노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 월간 기도지향

# 사명 공유를 위하여

---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아드마 그룹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사명 공유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가 끊임없이 연대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 간의 참여와 친교, 사명 공유를 촉진하는 공동합의적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